

국제원유 가격하락과 전망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국제 원유 가격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OPEC(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의 쿼타초과 산유경쟁이 가열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86년 7월 이래 최악의 폭락사태로 치달고 있다.

그동안 국제원유시장은 금년 상반기중 페르시아灣의 긴장고조에 따라 한때 급등세를 보였을 뿐 대체로 배럴당 15달러선에서 안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산유쿼타를 무시하고 새로이 증산에 나섬으로써 그 기조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OPEC회원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총회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새로운 감산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어 8월 20일 이란·이라크휴전에 이어 양국이 戰後복구를 이유로 쿼타증량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사태는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의 안정과 OPEC의 협력이라는 대의를 내걸고 자국의 원유생산설비가 하루 9백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백만배럴 정도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하루 5백만배럴 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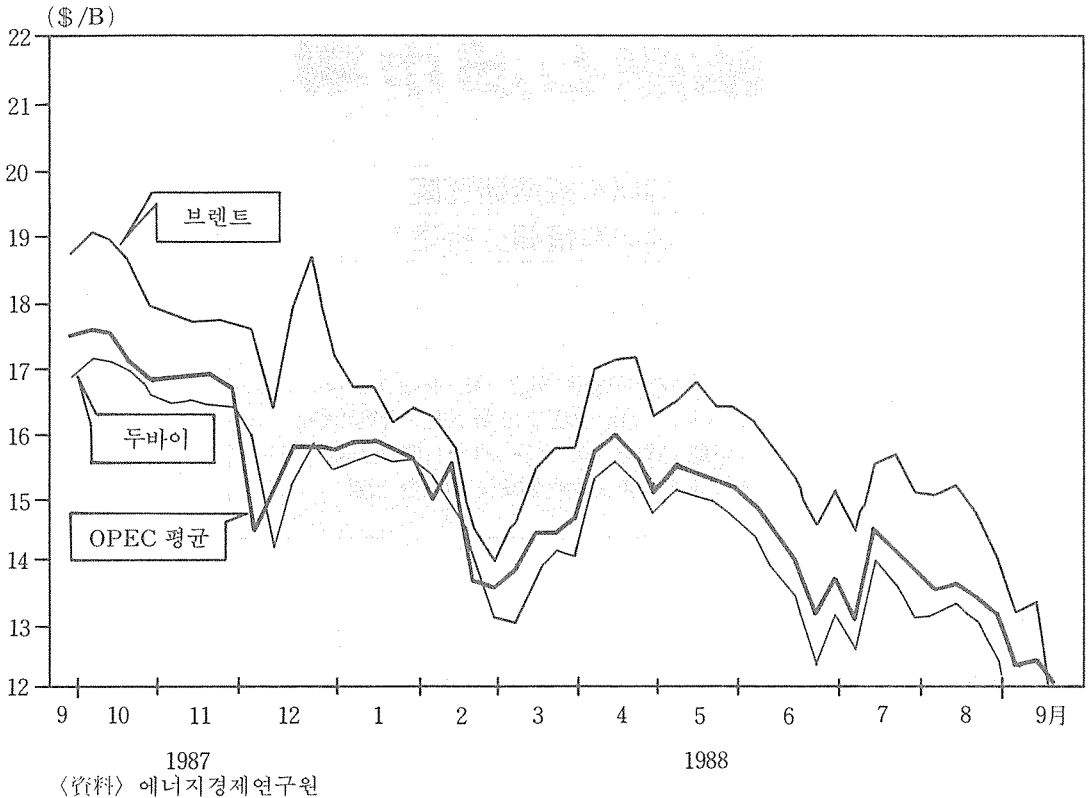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일부 산유국이 생산쿼타제의 폐지, OPEC의 탈퇴 등을 밝히고 있어 국제원유시장은 70년대와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와중에서 OPEC는 이달 하순경 가격감시위원회와 장기전략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생산조정과 유가회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쉽사리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고, 설사 어떠한 합의점에도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결국 OPEC는 오는 11월 21일 열릴 예정인 전체각료회의에서 OPEC의 전체산유쿼터를 현재의 1천5백6만 B/D(이라크 제외)에서 1천8백만 B/D~1천9백만 B/D(이라크 포함)로 높이는 한편 공시유가를 현재의 배럴당 18달러에서 14~15달러로 낮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원유가격의 하락은 그 소요량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경제적으로 플러스요인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또 향후 1~2년간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을 안고 있는 선진국이나 전반적으로 국제수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비산유개발도상국들에게도 그것은 반가운 뉴스일 것이다.

국제원유가격 추이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림픽 이후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올림픽 이후 국내경제 물가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산업의 에너지원인 국제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업계와 소비자 정책당국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원유가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과제는 우리의 유가체계이다. 현재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와외의 연동제가 아니라, 국내도입원유에 대해 기준유가를 설정하여 기준유가와 실제도입가격과의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 상당히 경직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지속되어도 기준유가가 고정되어 있어 하락분만큼 국내소비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석유사업기금에 흡수됨으로써 국제유가가 떨어질수록 석유사업기금만 늘어나는 기

묘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그간 수차례 소폭의 인하조치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으나,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물가에의 반영은 미미하거나 유통과정의 소폭인하에 그쳤다는 여론도 높다.

당초 석유사업기금은 제 2차 석유위기가 일어났던 지난 79년부터 시행, 80년에 배럴당 50센트씩 징수했으나,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10달러선인때반해 기금징수액은 10달러가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의 폭락을 계기로 석유사업기금과 국내유가정책 등에 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체에 경제민주주의 자율화라는 당위에도 걸맞게 석유사업기금과 유가정책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각계의 참여하에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